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 '빨간불'

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관정 133곳 조사 결과 서부 7곳 포함 총 8곳서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

제주 서부지역 등 일부 지하수 관정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표성 있는 지하수 133개소를 대상으로 60개 항목으로 이뤄진 2019년 상반기 정밀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인 10mg/l를 초과한 관정은 서부지역 7개소, 남부지역 1개소 등 총 8곳으로 조사됐다.

휘발성 물질 및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등은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보건환경연구원

은 설명했다.

질산성질소 농도의 전체 평균값은 2.8mg/l로, 서부 5.3mg/l, 동부 2.3mg/l, 남부 1.9mg/l, 북부 1.5mg/l 순으로 조사됐다.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 형태 및 집약된 축산업 영향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는 지하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정정지하수를 지키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 회복을 위해 '지하수 오염 차단 그라우팅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은 지하수 관정을 따라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중간 통로를 차단시키는 공법을 일컫는다. 이 공법은 2016년 도내에서 처음 시도돼 올해 초까지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림면과 한림읍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시행 결과 2개 관정에서 약 38%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시범사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한림 지역 6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북상 관련 상황판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태풍 피해 막아라'... 도, 비상 근무

시설안전·예찰활동 강화 협업부서·유관기관 협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부주의는 언제든 도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 대응 메뉴얼에 따라 기상상황에 걸맞는 근무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북상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제주는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인 만큼 반복

되는 훈련과 대비태세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에 대한 시설 대비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 급경사지 등의 재해취약지역에 현장 예찰과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19호 태풍 솔릭 때의 인명피해 사고를 언급하며 "해수욕장, 해안가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

피해, 소규모 관광지 출입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일 오전 8일 20분부터 비상 I 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및 예찰활동 강화를 비롯해 공사현장 안전 조치와 장비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기상 상황 전파 등에 힘쓰고 있다.

태풍주의보 발령 시에는 비상 II 단계 근무로 돌입해 13개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재난상황 안내·전파 ▷자원봉사 지원 ▷항공기 결항 체류객 관리 ▷물놀이 지역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성윤기자

'도의회 인사권 독립? 특별법에 직렬 신설을'

의회 제도개선위 토론회서 의장 추천권 한계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의회 의회개선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정기회의 및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발표에서 "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인사·조직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는 도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환류된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교수는 "도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전입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전출하는 상황에서는 도집행부를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의회직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의회직류 신설의 경우 여전히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직류에 부합하는 근무지는 의회가 되므로 최소한 일정 기간의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집행부서로 돌아가는 경우는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방안은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을 신설해 도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모든 단계 즉, 임용, 복직, 보직, 승진 등을 도의회 의장이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은지기자

"보호지 아닌 곳자알 내 건축 불허도 정당"

A씨 "시 처분 부당" 소송에 법 "지하수 보전 적합" 기각 서귀포시 "판결 의미 커... 곳자알 구별한 첫 사례"

곳자알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곳자알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제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안

덕면 서광리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서광리 지역에 지상 2층의 건축물허가와 사도개설 신청을 냈고, 서귀포시는 2018년 1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사도개설 신청 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곳자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모두 지하수보전 2등급의 곳자알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돼 관리하는 만큼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곳자알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불허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주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일정지역을 곳자알로 파악해 온 점과 제주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곳자알 보호지역과 곳자알을 구별해 판결한 첫 번째 판결로 큰 의미가 있고, 제주에서 곳자알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 식구 챙기기' 논란 지울까... 제주시 인사 앞뒤 서기관 승진 관심

오는 8월 2일 예정된 제주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기관 승진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고위직 제주시장이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밝힌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역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제주시를 만들겠다"는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는 다음 달 2일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하고 5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과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2명이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22일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사무관 2명의 서기관 승진이 기대되고 있다. 서기관 승진은 사무관 임용 후 4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현재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무관은 A과장(사무관 승진 5년), B과장(사무관 승진 5년), C과장(사무관 승진 4년), D과장(사무관 승진 13년) 등 4명이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Y과장이 2006년 사무관 승진 이후 12년만에 국장(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제주시 고참 사무관들의 승진이 늦어진 것은 그동안 제주시장의 입맛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해 온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 2018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승진 최저 소요 연수 4년을 다 채우지 못한 지난 2014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E사무관을 국장(서기관) 직무대리로 발탁, 승진시켰다. 승진 10년이 지난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있는 상태에서 3년 6개월짜리 E사무관을 발탁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측근 챙기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시는 또 2017년 1월 정기인사에서 제주시 전임시 승진순위가 4순위였던 K사무관을 1순위로 만들어 서기관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한 전 고위공직자는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도 6급 고참이 후배에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발탁인사라는 미명 아래 자기 식구 챙기기 인사에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제주가가 부른다! 저 넓은 세상을 향해 평화를 외친다!'

「JEJU 2019 전국장애인가요제」 참가자 모집

2019. 11. 20.(수) ~ 21.(목)

가요제 예선

- 참가신청 기간 : 2019. 8. 1.(목) ~ 29.(목)
- 가요제 경연 분야 : 대중가요, 장차가요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자명단, 개인(팀) 프로필사진, 영상자료(5분 내외)
- 제출방법 : E-mail(jappd@hanmail.net), 방문접수
- 예심발표 : 9. 30.(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주요 내용

- 전체일정 - 1차(예선) : 출품 작품 영상 심사
- 2차(본선) : 영상 심사 합격팀(20팀 내외)
- 경연시간 : 10분 이내

참가 자격

-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누구나
* 본선 진출 팀당 2인 이내 본선대회 기간 숙식 및 항공료가 지원

시상 내역

부문	수상	시상 및 부상내역
대상	1팀	트로피 및 부상 150만원
금상	1팀	트로피 및 부상 100만원
은상	1팀	트로피 및 부상 80만원
동상	1팀	트로피 및 부상 50만원
장려상	3팀	상 장 및 부상 30만원
인기상	3팀	상 장 및 부상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064)756-4980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E-mail : jappd@hanmail.net
홈페이지 : www.jappd.or.kr

주최/주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